

## 이 몸이 죽어 가서\_성삼문

갈래 : 평시조

성격 : 의지적, 상징적

제재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

특징 : 전통적으로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조를 부각함, 가정과 상징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초장 : 절개를 지키다 죽은 후 자신의 모습을 가정함

중장 : 지조 있는 소나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종장 : 시련 속에서도 곳곳하게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함

상황 : 부정적인 세력이 세상을 장악한 가운데 위기를 맞음

태도 :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홀로 지조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냄

낙락장송 : 화자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함

백설 : 시련, 고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일파를 상징함

비유와 상징 : '봉래산(순수한 자연)', '낙락장송(절개)', '백설(수양 대군과 그 일파)'과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형상화함

자문자답의 형식 : 초장의 '무엇이 될꼬 하니'와 종장의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라는

자문자답의 화법을 통해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분명하게 드러냄

배경 : 이 시조는 성삼문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할때 읊은 시조로 알려져있다. 온 세상이 모두 세조를 섬길지라도, 자심은 봉래산의 키 큰 소나무처럼 우뚝 서서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성삼문의 의지가 나타나있다.

##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

갈래 : 평시조

성격 : 감성적, 서정적

제재 : 연보의 정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특징 :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냄

초장 :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 냄

중장 : 촛풍 이불 아래 넣어 둠

종장 : 정든 임이 오시는 밤에 펼치고 싶음

시어의 대조 : '서리서리 넣어다가'와 '굽이굽이 펴리라'는 대조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함

음성 상징어의 사용 : '서리서리'와 '굽이굽이'를 통해 화자의 미묘한 여성 심리를 우리말의 음성어로 표현함

밤(시간)

-> 한 허리를 베어 내어 -> 가운데를 자를 수 있음

-> 서리서리 넣었다가 -> 이불 아래 넣어 둘 수 있음

-> 굽이굽이 펴리라 -> 여러 굽이로 펼 수 있음

추상적 개념인 ‘밤’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여 임 없이 혼자 보내는 밤은 짧게,임과 함께 지내는 밤은 길게 늘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냄

님의 침묵\_한용운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임과의 이별

주제 : 임에 대한 이별

주제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특징 : 경어체를 사용하여 여성적 어조를 느낄 수 있음, 역설적 상황을 통해 주제를 표출함

1~4행 : 임과의 이별(임과의갑작스러운 이별에 놀람)

5~6행 : 이별 후에 느낀 슬픔

7행의 ‘그러나’에서 슬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

7~8행 : 슬픔의 힘을 희망적으로 전환시킴

9~10행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함

감각적 상상 :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함

역설법 사용 :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함,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회자정리 거자필반

전문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제망매가\_월명사

갈래: 추모적, 애상적, 종교적

제재 : 누이의 죽음

주제 :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극복 의지

특징 :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음, 빼어난 문학적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작품의 서정성을 높이고 있음, 10구체 향가의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이 두드러짐

1~4행 : 누이의 죽음을 슬퍼함

5~8행 :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연 현상에서 발견한 삶의 무상감

9~10행 :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극복함

이 작품은 10구체 향가로, '4행-4행-2행'의 3단 구성을 보인다. 1~4행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슬픔은 5~8행에서는 안타까움과 무상감으로 고조된다. 그러나 9~10행에서는 종교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누이와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으로 정서를 승화시키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8행 : 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낌

-> '아아'(10구체 향가의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 -> 시상 전환

9~10행 : 재회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함,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인간적 고뇌를 극복함

감탄형 어법 사용 : 9행의 '아아'와 같은 감탄형 어법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의미의 폭을 강조함

비유법의 사용 : 자연의 섭리를 통해 누이의 이른 죽음을 나타내고 있음. 즉 가을 바람에 의해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죽음을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

이른 바람 :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

떨어질 잎 : 누이의 죽음

한 가지 : 한 부모에게서 난 동기간임을 비유함

시적 화자의 태도와 현실 대응 방식

누이의 죽음에 대해 절망하기보다는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하여 내세적인 만남이라는 불교 사상에 기대고 있다. 특히 시어 '미타찰'에는 시적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자신의 감정을 감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보인다. 그리하여 낙구에서 시적 화자는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적 믿음으로 극복, 승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아아' -> 10구체 향가의 형식적 특징임, 앞부분에서 심화된 고뇌와 슬픔이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극복되는 순가임, 작품 전체로 볼 때 시상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음

향가의 표기 방식

향찰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차자 표기의 일종이다. 한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빌려다 쓰는 음차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뜻을 빌려다 쓰는 훈차 방식이다. 향가 표기에서는 이 두가지 방식이 적절히 혼용되었다. 대체로 명사나 동사의 어간등은 훈차로, 조사나 어미 등은 음차로 표기하였다.

관련된 설화

월명은 죽은 누이를 위해서 재를 울릴 때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과웅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려 사라졌다. 월명은 늘 사천왕사에서 살았는데 피리를 잘 물었다.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문 앞의 큰길을 지나가니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길을 월명리라 했고, 월명사 또한 이로써 이름이 났다. 신라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함은 오래 되었는데 대개 시송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주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심청전\_작자 미상

갈래 :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성격 : 교훈적, 비현실적, 환상적

제재 : 심청의 효심

주제 :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권선징악

특징 :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 유교의 효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이 담겨 있음,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인당수 제물이 될 때까지의 전반주와 환생하여 황후가 되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눈을 뜨는 후반부로 나뉨

발단 : 심청의 출생과 성장 과정

전개 : 심청이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고생을 함,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몸을 팔게 됨

위기 :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짐

절정 : 심청이 다시 살아나 황후가 됨

결말 :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심봉사는 눈을 뜨게 됨

심청 :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 희생정신이 강함, 운명에 순응함

심봉사 : 무능력함, 정이 많음, 딸을 많이 사랑함

벋사람들 : 심청 부녀를 딱하게 여기며, 배려심이 있음, 인정이 많고, 홀로 남겨질 심 봉사를 위해 살림을 꾸며줌, 심 봉사를 위한 쌀과 돈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일 처리가 확실함

장 승상 덕 부인 : 심청을 무척 아낌, 물질보다 인간의 정을 중시함, 효성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참말이냐~ 두고보오?” ->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구어적 표현과 운문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함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생을 다룸 -> 심청이의 출생 - 고난 과정 - 행복한 결말의 구조를 가짐, 다만 심청이가 죽음 이후 부활한다는 점에서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내용으로 끝남 -> 심청이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고, 아버지를 위해 죽음까지 선택함. 그러나 이후 연꽃으로 환생하여 황후가 되고, 아버지와 재회한 후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내용으로 행복하게 끝남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됨 -> 용궁에 간 심청이가 죽은 어머니와 만나는 부분이나 연꽃이 되어 환생하는 부분 등 비현실적 상황이 전개됨

주제 의식

<심청전>의 주제는 심청의 ‘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효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심청전> 이 표면적으로는 ‘효’라는 인간의 보편적 덕목이자 유교의 덕목을 긍정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러한 이념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심청이 목숨을 버리려 한 것은 아버지에게 대한 효성 때문인데 실상 목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에 해당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을 통해 ‘효’라는 유교 윤리를 드러내는 대신 당시 하층민이 겪어야 했던 가난과 평범한 의미의 효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완판본

<심청전>에서 잘 나타난다. 완판본<심청전>은 현실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인물인 뱃덕 어미를 통해 유교 윤리를 비판하고, 심 봉사를 매우 세속적이고 희극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심청전>이 전통적인 윤리를 부정하고 현실을 긍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심청은 물에 빠졌다가 거둬나기 때문에 그 제의적 의미 역시 중요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작품 주제는 논란거리인 만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그 현대적 의미도 거듭 평가되고 있다.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_백석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고백적, 반성적, 의지적

제재유량인의 삶

주제 :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특징 : 편지의 형식을 빌려 화자의 근황을 제시함, 향토적인 시어와 방언을 사용함, 심표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이며’, ‘~것이였다.’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1~8행 : 상실과 방랑 끝에 타관 땅 어느 목수의 집에 세를 얻어 살게 됨(시적 화자의 고난과 방황)

9~19행 : 좌절과 실의 속에 무기력하게 살면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절망적 상황에 이름(시적 화자의 번민과 고통)

20~23행 : 삶의 고달픔과 슬픔이 운명적인 것임을 깨달음(현실적 한계의 수용)

24~32행 : 겸허한 자세로 다시 운명을 긍정하고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짐(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현실 극복의 의지)

편지의 형식을 취하여, 행과 연의 뚜렷한 구분이 없음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에서 ‘방’은 편지를 보낼 때 세대주의 이름에 붙이는 표현임

심표를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과 내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함

평안도 방언과 토속적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냄 : 삿, 딜옹배기, 복덕불

객관적상관물을 통해 시적 화자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냄 : 갈매 나무 : 굳고 정한

이미지를 지닌 나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표상이자 희망임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함 : 부정적, 비관적 -> 그러나 -> 긍정적, 낙관적

정서 변화

1~8행 : 외로움과 쓸쓸함

9~14행 : 무료함과 지루함

15~18행 : 회한과 슬픔

19행 : 좌절과 절망

24~25행 : 안정과 진정

26~28행 : 경건과 겸허

29~32행 : 의지와 희망

20행의 그러나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임. 20행 이전에서는 화자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지만 10행에서부터는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이 작품은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 집’이라는 제목의 뜻에 주목해 볼 때, 친구에게(혹은 스스로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고백시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소리 내어 읽노라면 그가 나직이 말을 건네는 듯 ‘가슴이 짝 메어 오고’,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이’곤 한다.

‘나’라는 시어나 ‘-이며’, ‘-아서’, ‘-인데’와 같은 나열 혹은 연결 어미나 ‘-것이였다’라는 종결 어미 등의 반복이 내뿜고 있는 독특한 산문적 리듬이어야 말로 이 시의 백미이다.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한다’는 직유이며,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직설이며,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역설 등  
사무치지 않는 구절이 없다. '이' 습내 나는 좁고 느긋한 방에서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기까지의 의연한 회복 과정이 유창한 리듬과 어우러져 한편의 인생  
서사를 떠올리게 한다.